

# 신선농산물 동남아시아 검역타결 가능 품목 수출조사

## - 대만 키위(참다래) -

2020. 01.

# [ 목 차 ]

<b>I. 국내 시장동향</b>	<b>3</b>
1. 생산현황	3
2. 유통현황	9
3. 소비현황	15
4. 수출현황	21
<b>II. 대만 시장동향</b>	<b>26</b>
1. 생산현황	26
2. 유통현황	27
3. 소비현황	36
4. 수입현황	37
<b>III. 시장현황비교분석</b>	<b>43</b>
1. 시장현황비교	43
2. 수출국 시장분석	44
<b>IV. 시장확대방안</b>	<b>46</b>
1. 품목유망성	46
2. 시장확대방안	48

# I. 국내 시장동향

## 1. 생산현황

### 1) 재배품종

□ 키위<sup>1)</sup>는 크게 과육의 색깔에 따라 △그린키위 △골드키위 △레드키위로 분류됨

- 그린키위의 대표 품종은 ‘헤이워드(Hayward)’ 로, 전국 키위 재배면적의 약 70~80%를 점유하고 있음
  - 그린키위는 껍질에 튼튼하며 저장성이 높아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단수가 높아 10a당 2.0~2.5톤 생산이 가능함
  - 헤이워드는 뉴질랜드계 품종으로 로열티 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비용지급 없이 자유롭게 재배가 가능함
  - 국내에서 육성된 그린키위 품종으로는 스위트골드, 감록 등이 있음
- 골드키위의 대표품종은 ‘제스프리 골드’ 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호트16에이(Hort16A)’ 로, 전국 키위 재배면적의 약 10%를 차지함
  - 헤이워드보다 단수가 높아 10a당 3톤 이상 생산이 가능한 다수확성 품종이나, 제스프리사가 소유한 품종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
  - 국내에서 육성된 골드키위 품종으로는 제시골드, 해금 등이 있음
- 레드키위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중국계 품종인 ‘홍양’, 뉴질랜드계 품종인 ‘엔자레드’ 등이 있음
  - 레드키위 품종은 그린 및 골드키위에 비해 개화와 수확이 가장 빠르나 껍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당도 품종이기 때문에 출하가격이 높아 농가의 재배의향이 높으며, 주로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키위 육종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골드키위 10품종, 그린키위 7품종(미니품종 포함), 레드키위 1품종, 수분수 3품종 등 총 21개의 품종을 육성함
  - 국산 키위 품종의 보급률은 2006년 0% 수준에서 2015년 21.7%로 9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향후 2020년까지 보급률 24.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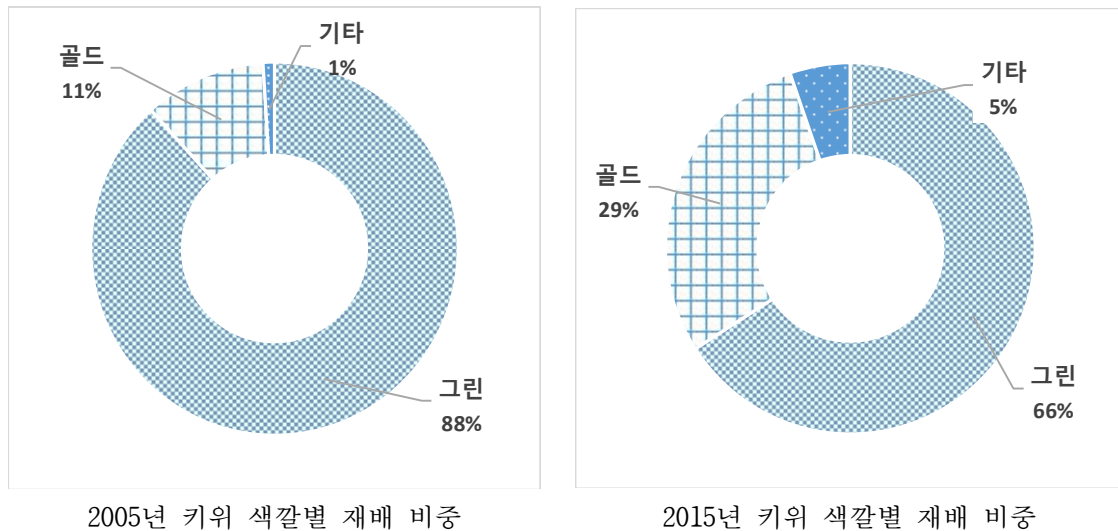
1) 1991년 국내산 키위와 수입산 키위의 구분을 위해 국내에서 재배되는 키위를 ‘참다래’ 로 명명하였으나 최근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키위로 명칭을 통일함(농촌진흥청 남해출장소)

<그림 I -1-1> 국내 키위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하이워드	 스위트골드	 감록
골드 키위	 제시골드	 골드윈	 한라골드
레드 키위	 홍양	 엔자레드	 제홍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nongsaro.go.kr),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www.hallagold.co.kr)

<그림 I -1-2> 키위 색깔별 비중



\*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관소개>과학원>부서업무>남해출장소(www.nihhs.go.kr)

## □ 기존 그린키위에 편중되어 있던 키위 품종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임

- 2015년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은 그린키위 66.0%, 골드키위 29.0%, 기타 품종 5.0%로 집계됨
  - 2005년 88.3%에 달하던 그린키위의 비중이 2015년 66.0%로 하락한 반면, 골드키위 품종은 종전 12.0% 수준에서 29.0%까지 확대되어 최근 10년간 키위 품종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재배기술의 고도화, 생산성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재배기술의 발달과 시장 내 수요변화에 따라 그린키위 단일 품종을 재배하던 생산농가들은 골드, 레드 등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고자 함

## 2) 생산동향

### 가. 생산량 추이

## □ 2018년 국내 키위 생산량은 20,000톤<sup>2)</sup>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2만 2,000톤에서 2만 3,500톤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sup>3)</sup>

- 국내 키위 생산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7년 기준 키위 주요 생산지인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생산량은 2만 1,480톤가량으로 확인됨<sup>4)</sup>
  - 동년 제주지역의 키위 생산량은 8,498톤으로 주요 생산지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키위 재배면적은 주 생산지 중 가장 규모가 작으나, 시설재배로 인해 단수가 높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전남지역의 생산량은 6,904톤, 경남에서는 6,078톤의 키위가 생산되었음
- 국내 키위 도입 초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노지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1999년부터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시설재배가 본격화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3) 전남대학교 조정안 교수 인터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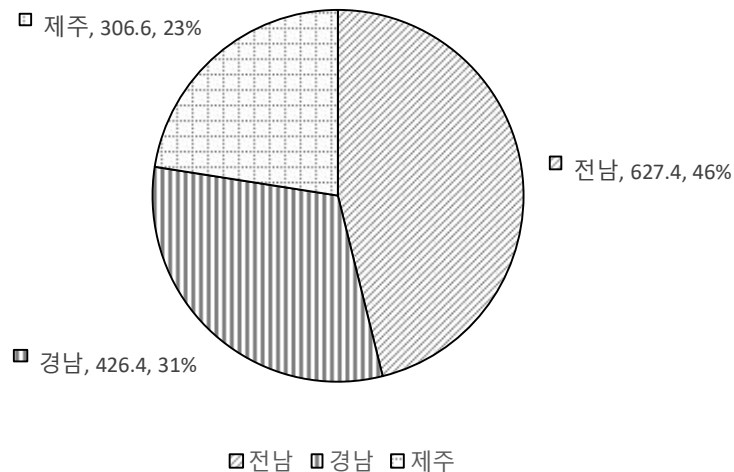
4) 참다래의 소비 트렌드와 대응방안, 농업정보신문(2019.04.08.)

##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 2017년 전국의 키위 재배면적은 1,360.4ha로 집계됨<sup>5)6)</sup>

- 국내 키위 주 생산지 중 전남의 재배면적이 가장 넓으며, 뒤이어 경남, 제주 순으로 나타남
  - 동년 전남의 키위 재배면적은 627.4ha로 집계되었으며, 경남 426.4ha, 제주 306.6ha로 집계됨
  -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노지재배 방식으로 키위가 생산되고 있어 시설재배로 키위를 생산하는 제주 지역보다 단수가 낮아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키위는 발아기(3월) 및 개화기(5월)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sup>7)</sup>에서 재배되어야하기 때문에 주로 남부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I -1-3> 2017년 지역별 키위 재배면적 비중



\* 출처: 농업정보신문(www.nongup.net)

- 국내에서 재배하는 키위의 품종별 재배면적은 헤이워드<sup>8)</sup>가 약 857.2ha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국내 육성품종인 해금, 골드원, 한라스위트 등의 보급률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24.6%를 차지함<sup>8)</sup>

5) 참다래의 소비 트렌드와 대응방안, 농업정보신문(2019.04.08.)

6) 생산량과 동일하게 키위 재배면적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 생산지역의 재배면적으로 전국 규모를 추산함

7) 사양토, 사질양토 등

8) 참다래의 소비 트렌드와 대응방안, 농업정보신문(2019.04.08.)

## 다. 작기 및 출하기

□ 국내 키위 재배 시 발아기는 3월경으로, 품종에 따라 소폭의 차이가 있음

- 골드키위와 레드키위의 발아기가 3월 초(3월 2일~8일)경으로 가장 이르며, 헤이워드 등 그린키위는 3월 중하순(3월 20일~25일)경으로 나타남
- 5월 초 개화기까지 생산지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개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표 I -1-1〉 키위 재배력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육 상태	신장기						꽃눈분화기			성숙기		낙엽기	
	휴면기	봄이키			개화기	과실비대기					수확기	휴면기	
재배 관리 주요 작업	밀거름				인공 수분	1차 웃거름		2차 웃거름				밀거름	
	저장출하				꽃방울숙기	적과						저장 출하	
	겨울전정		1차	2차	여름전정	3차	4차				수확	겨울 전정	

□ 키위의 주출하기는 10월 초순부터 11월 중하순까지임

- 품종별로 수확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도 1~2주가량 차이를 보임
  - 레드키위의 수확시기가 10월 초순으로 가장 빠르고, 약 20일 후 국내에서 육성한 골드키위 품종을 수확하며, 이후 헤이워드를 수확함
- 일반적으로 그린키위(주로 헤이워드 품종)는 당도 7.0° Bx를 기준으로 서리가 내리기 전 수확하며, 과중 후 180일 전후 수확하는 것이 가장 상품성이 좋음
- 골드키위 품종은 일반적으로 당도가 9.0° Bx 이상일 때 수확하며, 그린키위 품종과 달리 과육색깔이 황색으로 발현된 후에 수확해야 함

##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2019년 1월 1일부로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키위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이 적용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등급규격

- 개정된 등급규격에서는 농산물의 크기(무게) 기준이 삭제됨

항목 \ 등급	특	상	보통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향미	품종 고유의 향미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털	털의 탈락이 없는 것	털의 탈락이 경미한 것	털의 탈락이 심하지 않은 것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이하인 것 부패 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경결점과	이하인 것	이하인 것	이하인 것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표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S	S	M	L	2L
g/개	70 미만	70 이상 85 미만	85 이상 105 미만	105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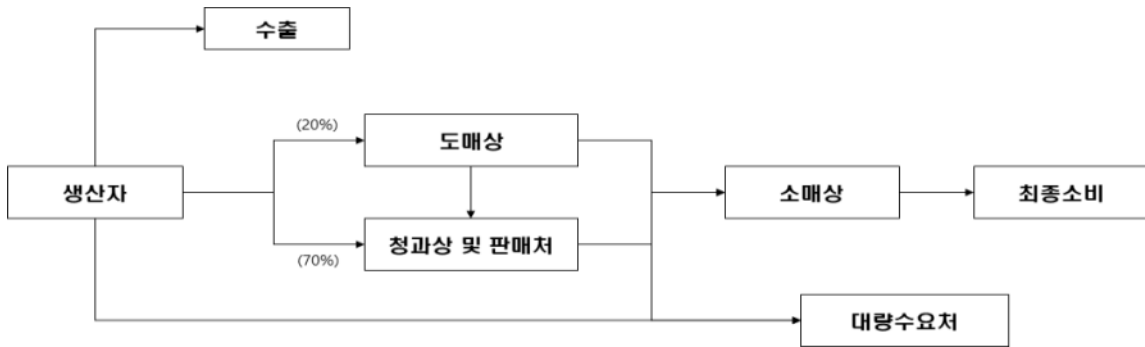
## 2. 유통현황

### 1) 유통구조

□ 키위는 대부분 개별 농가나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연계된 청과상이나 판매처를 통해 출하됨

- 저온저장고가 없는 일부 농가는 농협을 통해 출하하기도 하나, 대다수의 농가는 과일 청과상 및 판매처로 전체 물량의 70~80%가량을 출하함
- 나머지 약 20%의 물량은 서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됨
  - 월별 도매가격이 일정치 않으며, 농가마다 수취 가격이 달라 재배농가들은 도매시장보다 대형유통업체의 유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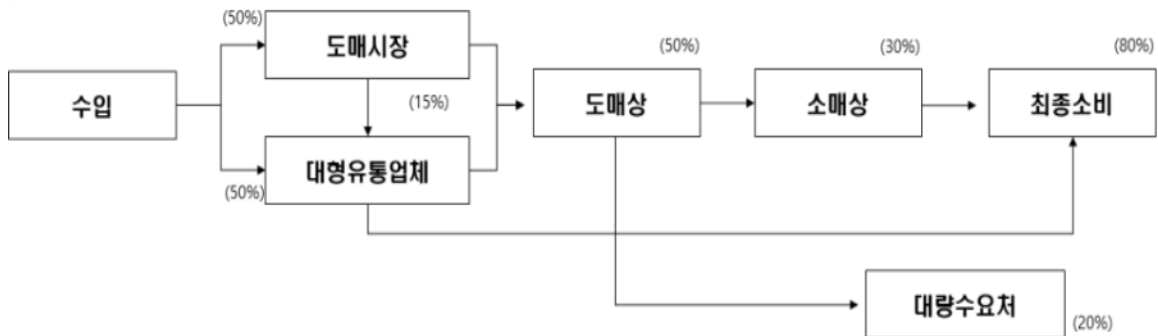
<그림 I -2-1> 국내산 키위 유통구조



\* 출처: 키위 생산농가 방문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 수입산 키위는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로 각각 유통됨
- 대부분 국산 키위 수매업체가 수입산 키위도 수입하여 유통하는 구조를 띠

<그림 I -2-2> 수입산 키위 유통구조



\* 출처: 수입농산물유통실태 「키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바탕으로 재구성

9) 키위 생산농가 방문 인터뷰 결과 반영(2019-06-05)

## 2) 도·소매현황

□ 2018년 전국 도매시장의 키위 반입물량 9,274톤 중 국내산 반입물량은 4,902톤 (52.9%), 수입산 4,372톤(47.1%)으로 비교적 유사한 비중을 나타냄

- 국내산 키위의 주출하기인 11월부터 저장물량이 소진되기 전인 익년 4월까지의 도매물량이 많은 편이나, 저장물량이 소진되는 5월부터 10월까지의 도매물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5월부터 10월까지의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산 키위가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유통되는 물량은 전체의 52.9%에 달하는 4,372톤 수준으로 집계됨
  -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산 키위는 대부분 뉴질랜드산으로 전체 수입량의 89%를 차지하며, 이 외 칠레산은 전체 시장의 약 10%가량을 차지함
    - 한국 키위 유통 사업단은 뉴질랜드의 제스프리社와 2007년 MOU를 체결하여 키위 연중공급체계를 확립함
    - 북반구와 남반구의 키위 출하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키위가 생산되지 않는 5~10월에만 한국에 뉴질랜드산 키위를 수출함

〈표 I -2-1〉 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도매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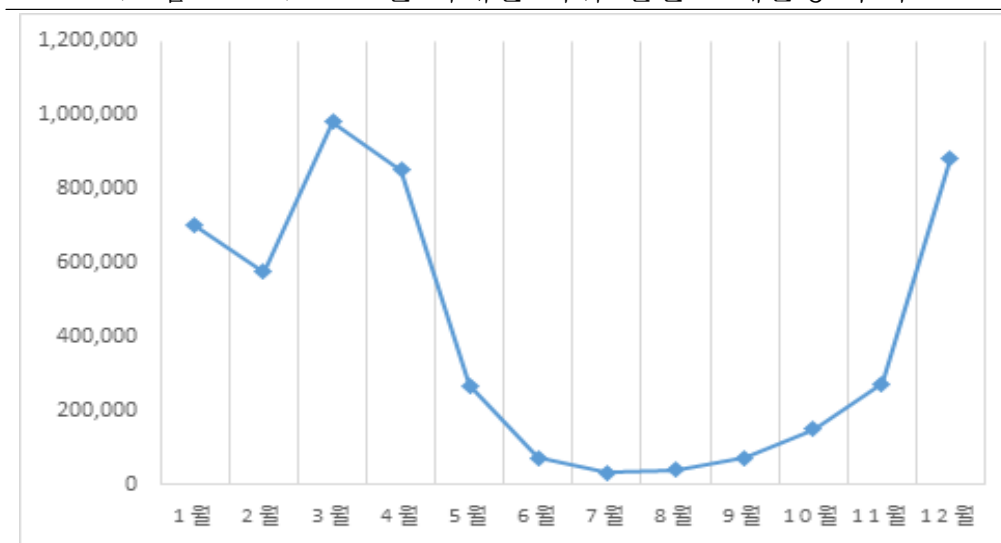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702	577	982	851	267	73	32	40	71	150	272	885	4,902

\* 주: 전국도매시장 물량 중 수입산을 제외한 값임

\* 출처: 농업관측 통계정보 시스템 KREI OASIS>도매시장>전국도매시장>가격/반입물량(oasis.krei.re.kr)

〈그림 I -2-3〉 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도매물량 추이



〈표 I -2-2〉 2014~2018년 국내산 키위 도매물량 추이

(단위: 톤)

2014	2015	2016	2017	2018
2,983	6,279	4,767	4,701	4,902

\* 주: 전국도매시장 물량 중 수입산을 제외한 값임

\* 출처: 농업관측 통계정보 시스템 KREI OASIS>도매시장>전국도매시장>가격/반입물량(oasis.krei.re.kr)

□ 2018년 기준 국내산 키위의 평균 도매가는 kg당 3,223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동년 키위 상품(上品)의 연평균 도매가는 kg당 3,465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54원가량 증가함
  - 3월의 도매가격이 3,576원/kg으로 가장 고가에 유통되며, 12월에는 3,258원/kg으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유통됨
- 중품(中品) 키위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981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47원 가량 증가하였음
  - 중품의 월별 도매가격은 3월 3,096원/kg, 12월 2,756원/kg로 각각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록함

〈표 I -2-3〉 2014~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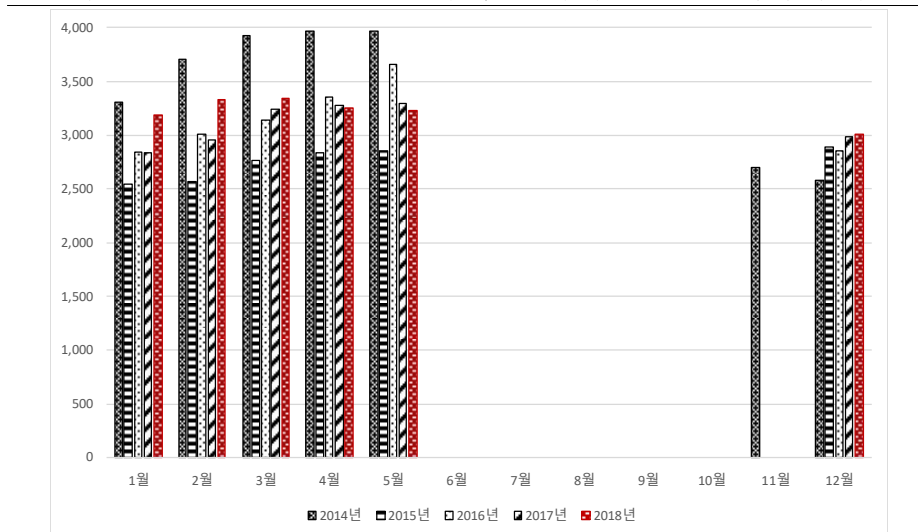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3,310	3,700	3,921	3,970	3,970	-	-	-	-	-	2,701	2,584	3,462
2015	2,551	2,567	2,768	2,831	2,860	-	-	-	-	-	-	2,883	2,736
2016	2,849	3,013	3,137	3,356	3,661	-	-	-	-	-	-	2,859	3,128
2017	2,837	2,956	3,245	3,269	3,300	-	-	-	-	-	-	2,985	3,073
2018	3,191	3,324	3,336	3,250	3,230	-	-	-	-	-	-	3,007	3,223

\* 주: 국내 시장 유통 중인 국내산 키위 도매가격 상품, 중품의 평균치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I -2-4〉 2014~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 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의 평균 도매가는 kg당 3,968원으로 국내산보다 745원 가량 높은 수준임

- 동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상품(上品)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4,168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341원 증가함
  - 월별 도매가격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집계되지 않으며, 5월이 kg당 4,292원으로 가장 높고 12월에 kg당 3,998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통됨
- 중품(中品)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3,768원으로 전년대비 399원 증가함
  - 월별 도매가격은 5월 가격이 3,893원으로 가장 높으며 12월 가격이 3,598원으로 가장 낮음

<표 I -2-4> 2014~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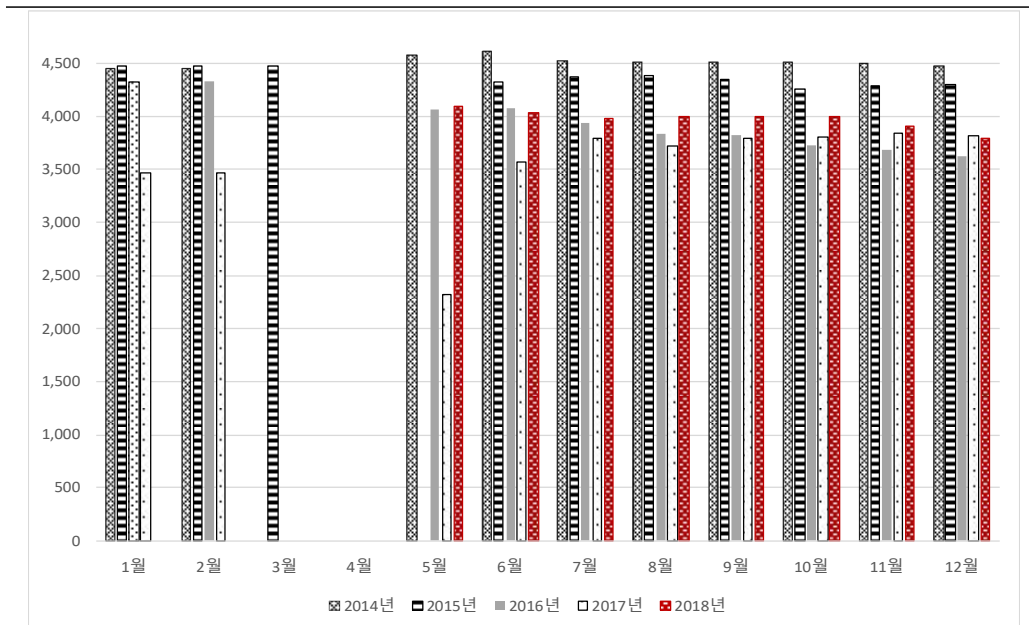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4,450	4,450	-	-	4,580	4,607	4,527	4,510	4,510	4,510	4,504	4,470	4,510
2015	4,470	4,470	4,470	-	-	4,319	4,373	4,390	4,352	4,263	4,290	4,299	4,357
2016	4,325	4,330	-	-	4,069	4,077	3,939	3,837	3,830	3,729	3,690	3,619	3,915
2017	3,472	3,470	-	-	2,320	3,567	3,800	3,714	3,790	3,810	3,850	3,814	3,598
2018	-	-	-	-	4,093	4,031	3,989	3,997	4,000	4,000	3,912	3,799	3,968

\* 주: 국내 시장 유통 중인 뉴질랜드산 키위 도매가격 상품, 중품의 평균치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I -2-5> 2014~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 2018년 평균 국내산 키위의 소매가는 개당 약 545원으로, 전년대비 소폭(3.9%) 감소함

- 월별 키위 소매가격은 비교적 일정하여 개당 500원대의 가격선을 유지함
- 국산 키위의 저장물량이 소진되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소매가격이 집계되지 않음

<표 1 -2-5> 2015~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소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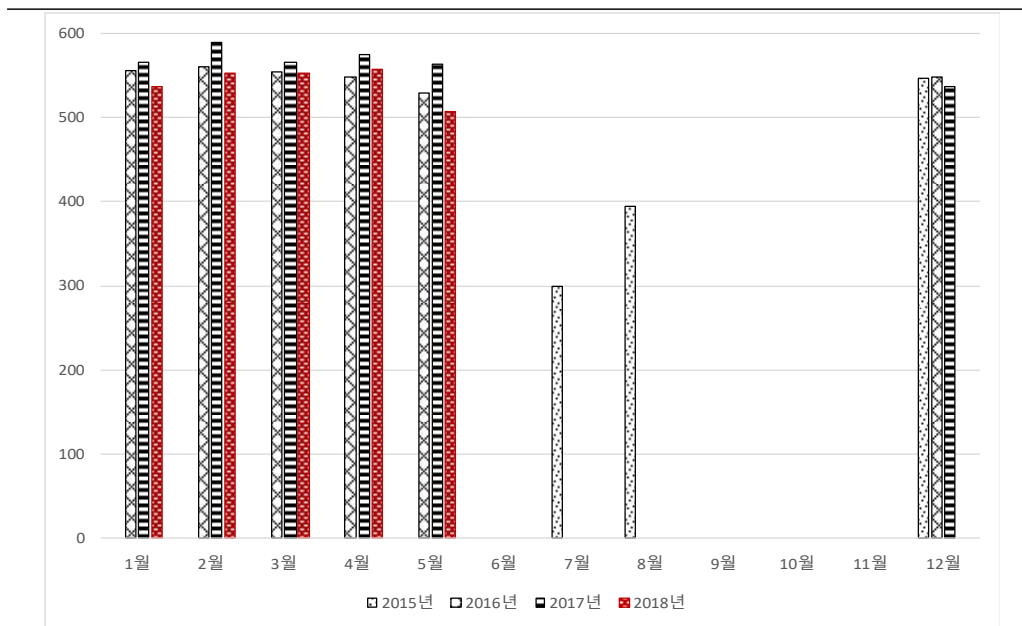
(단위: 원/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5	-	-	-	-	-	-	300.0	395.0	-	-	-	547.0	414.0
2016	556.2	560.6	554.7	547.5	529.0	-	-	-	-	-	-	548.3	550.6
2017	565.7	589.9	565.1	575.0	563.2	-	-	-	-	-	-	536.4	566.8
2018	537.5	552.4	553.5	557.0	507.1	-	-	-	-	-	-	-	544.5

\* 주: 국내 시장 유통 중인 국내산 키위 소매가격 상품, 중품의 평균치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1 -2-6> 2015~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소매가격 추이



□ 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의 평균 소매가는 개당 585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함

- 뉴질랜드산 키위는 국산 키위가 유통되지 않는 시기인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유통되며, 국내산 키위의 소매가격보다 40.6원 높은 수준에 유통됨
- 2018년 기준, 국산 키위의 저장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5월에 뉴질랜드산 그린키위의 국내 소매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I -2-6〉 2015~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월별 소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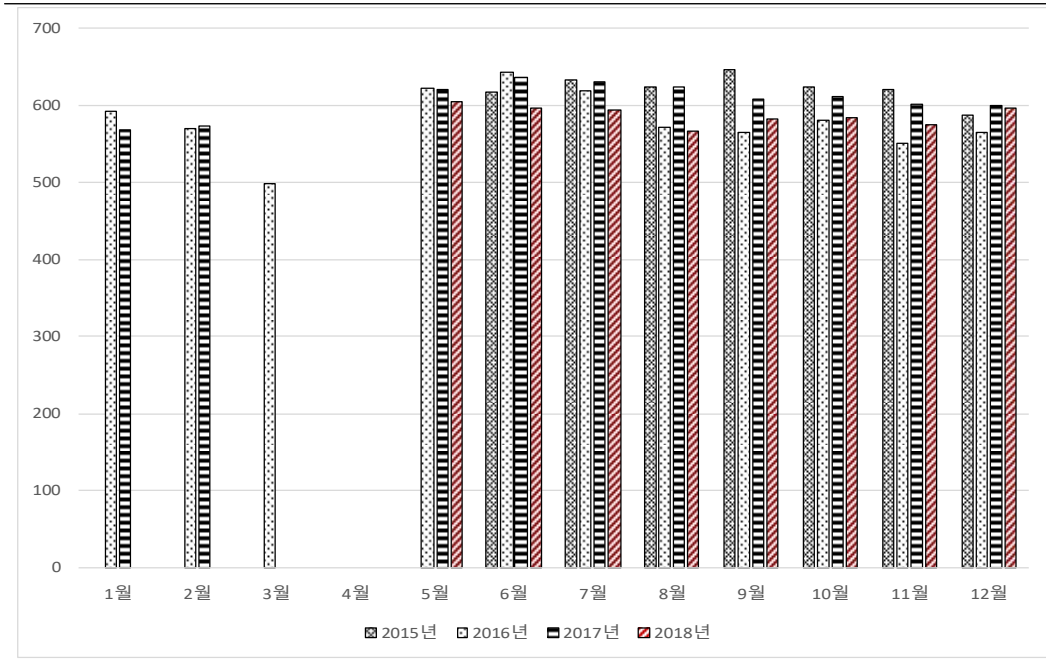
(단위: 원/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5	-	-	-	-	-	617.6	632.4	624.1	647.1	623.3	620.0	587.5	621.7
2016	591.8	569.9	498.0	-	621.6	642.2	619.4	572.5	564.5	581.2	550.3	564.0	585.9
2017	568.8	574.2	-	-	620.4	635.8	630.8	624.3	608.8	612.1	601.0	598.9	609.8
2018	-	-	-	-	604.7	595.4	593.7	566.4	581.8	583.5	574.6	595.2	585.1

\* 주: 국내 시장 유통 중인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소매가격 상품, 중품의 평균치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I -2-7〉 2015~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월별 소매가격 추이



### 3. 소비현황

□ 국내 키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대비 2016년 전체 소비량은 40.5%가량 증가한 5만 1,424톤으로 집계됨

- 식품의 건강 기능적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제고와 맞물려 국내 키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식품영양학회에 따르면 과일의 영양 우수성 평가<sup>10)</sup>에서 키위가 1위를 차지해 영양적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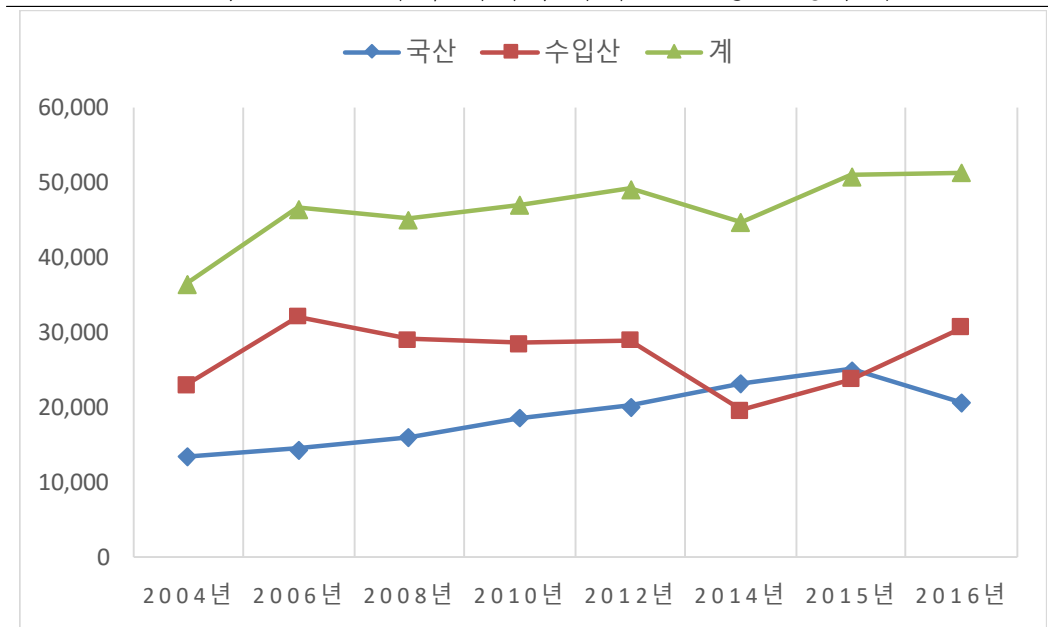
〈표 I -3-1〉 국내 키위(참다래) 소비량 변동추이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2016
국산	13,500	14,500	16,050	18,601	20,232	23,183	25,159	20,689
수입산	23,100	32,122	29,085	28,515	28,945	19,590	23,822	30,735
계	36,600	46,612	45,135	47,116	49,177	44,787	50,996	51,424

(단위: 톤)

\* 출처: 제주도 지역농업신문 「새로운 제주농업」 2018-02월호

〈그림 I -3-1〉 국내 키위(참다래) 소비량 변동추이



10) 농사로 작목기술정보 「키위 이용 및 가공품 제조방법」

□ 농촌진흥청<sup>11)</sup>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그린키위 구매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골드키위와 레드키위 구매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맛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서 기인하는데, 소비자들은 신맛이 강하고 단단한 그린키위보다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은 골드키위를 선호하기 때문임
- 또한 국내산 레드키위의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비타민C 함유량을 기준으로 그린키위 100g 기준 30~8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반면 레드키위는 140mg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과일로 평가됨<sup>12)</sup>

□ 국내 소비자들은 주로 생식용으로 키위를 구매하며, 요리나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키위의 가공용 소비비중은 0.3%로 전체 17개 과종<sup>13)</sup> 중 11위에 위치함
  - 키위는 단가가 높아 업무용 소비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형과 등 상품성이 없는 키위의 경우 주스나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소비됨
- 키위로 제조된 가공품 유형은 넥타, 잼, 음료 등이 있으며 이 중 잼의 비중이 31.9%로 가장 높음

<표 I -3-2> 국내 키위 가공품 유형 및 비중

(단위: 톤, %)

구분	넥타	잼	음료	조미	기타	합계
물량(톤)	11	185	1	18	366	580
비중(%)	1.9	31.9	0.2	3.1	63.1	100

\* 출처 : 「과실류 가공현황 2016」,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키위 섭취량은 548g으로 집계되었으며, 2015년 이후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최근 10년간 국내 키위 섭취량은 2010년 연간 약 1.2kg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약 500~600g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키위의 폴리페놀 성분인 퀘르세틴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키위의 효능이 주목받게 되었음

11)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1,520가구 대상(2018년 기준)

12) 월간원에

13)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유자, 감, 복분자, 매실, 머루, 오디, 오미자, 키위, 파인애플, 무화과, 살구



- 키위 중과(M사이즈)를 평균 80~100g으로 보았을 때, 국민 1인당 연간 소비하는 키위는 약 5~6개로, 두 달에 키위 한 개를 소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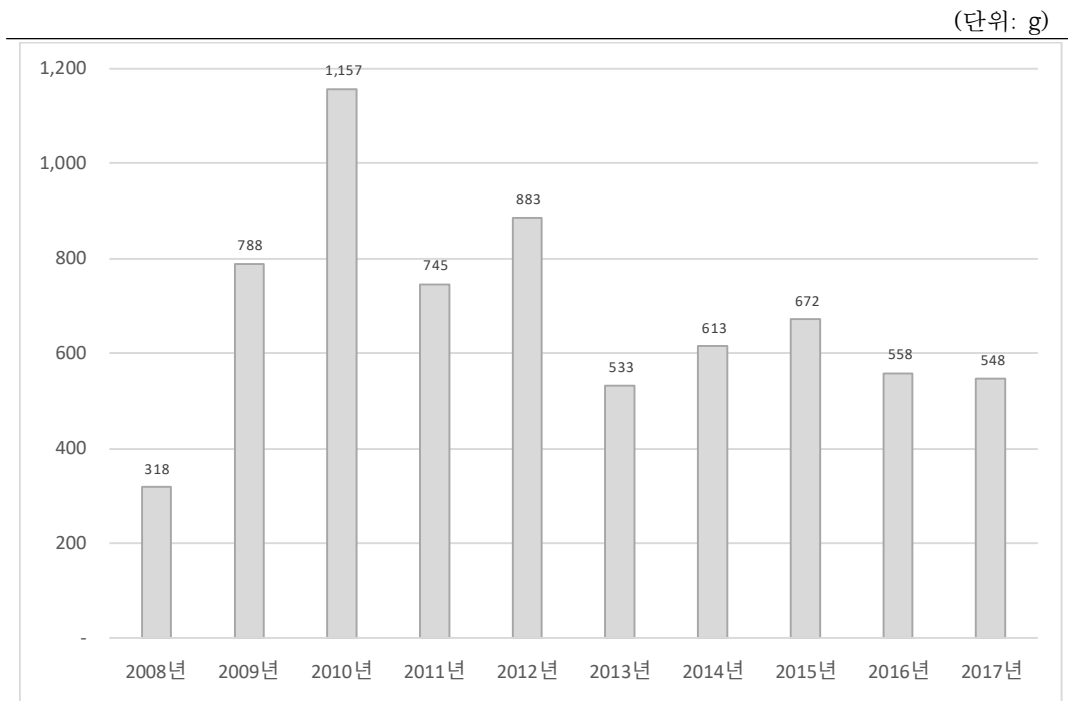
〈표 I -3-3〉 2008~2017년 1인당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일섭취량	0.87	2.16	3.17	2.04	2.42	1.46	1.68	1.84	1.53	1.50
연간섭취량	318	788	1,157	745	883	533	613	672	558	548

\* 주: 일일 섭취량(g)을 바탕으로 연간 소비량 산출(일일소비량\*365일)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민영양통계>식품섭취량>식품별 섭취량(www.khidi.or.kr)

〈그림 I -3-2〉 2008~2017년 1인당 연간 키위 섭취량



□ 지역별 키위 섭취량은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2017년 중소도시의 키위 섭취량은 613g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많은 키위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의 키위 섭취량은 연간 544g으로 중소도시의 섭취량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읍/면지역에서의 키위 섭취량은 중소도시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365g으로 집계됨

〈표 I -3-4〉 2008~2017년 지역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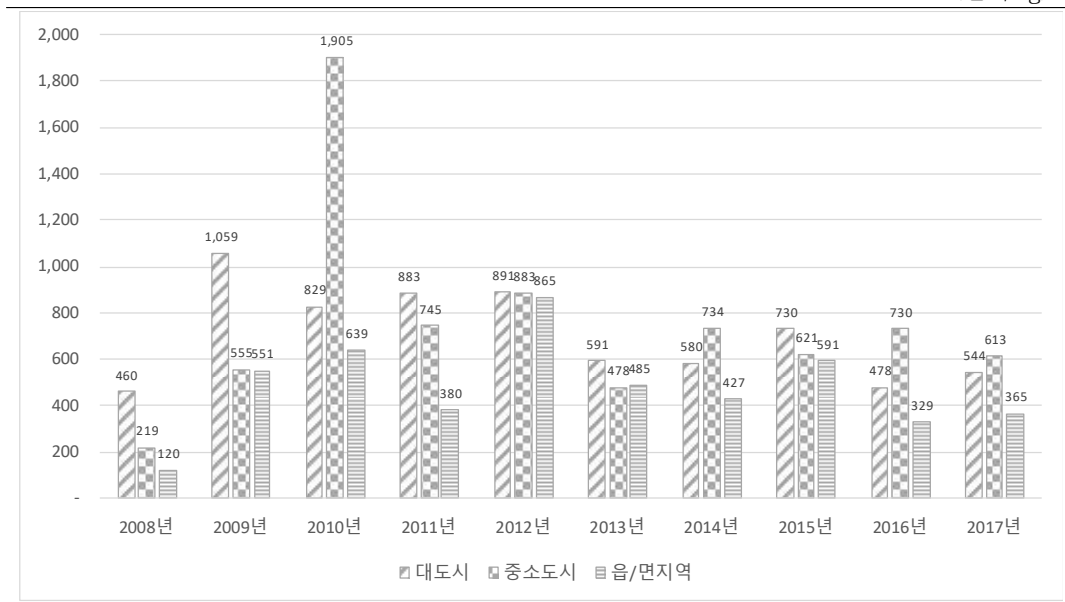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도시	460	1,059	829	883	891	591	580	730	478	544
중소도시	219	555	1,905	745	883	478	734	621	730	613
읍/면지역	120	551	639	380	865	485	427	591	329	365

\* 주: 일일 섭취량(g)을 바탕으로 연간 소비량 산출(일일소비량\*365일)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민영양통계>식품섭취량>식품별 섭취량(www.khidi.or.kr)

〈그림 I -3-3〉 2008~2017년 지역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 여성의 연간 키위섭취량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과 2016년을 제외한 매년 여성의 키위 섭취량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여성의 키위 섭취량은 연간 613g으로 남성의 섭취량인 482g의 약 1.3배 높음

〈표 I -3-5〉 2008~2017년 성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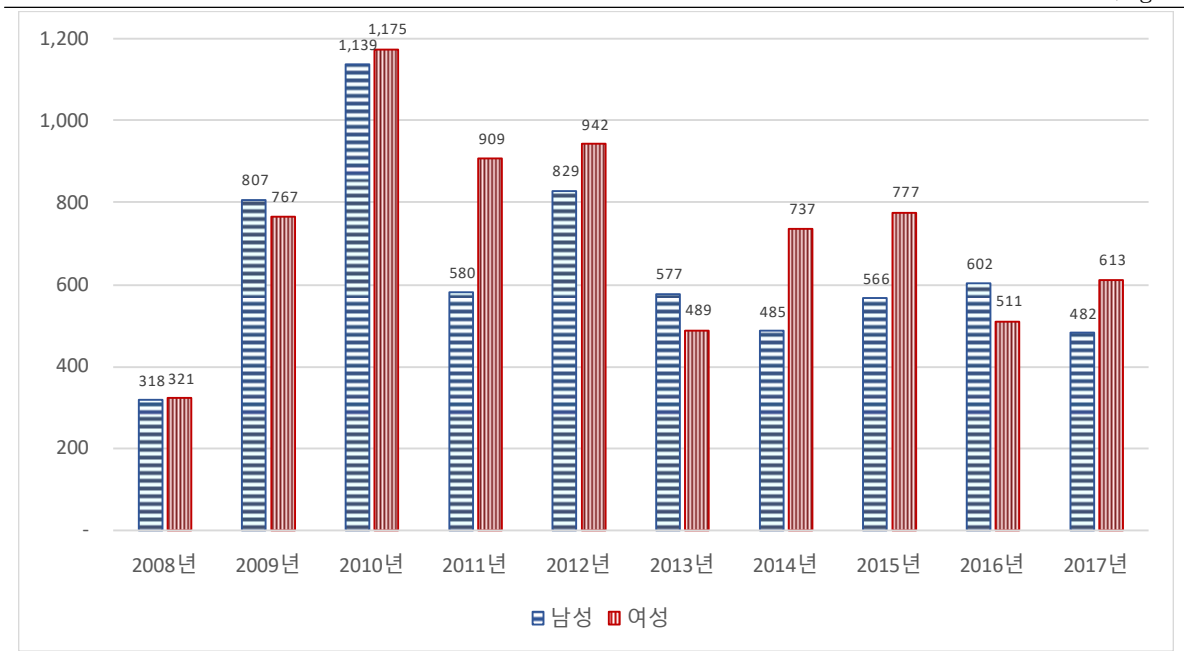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318	807	1,139	580	829	577	485	566	602	482
여성	321	767	1,175	909	942	489	737	777	511	613

\* 주: 일일 섭취량(g)을 바탕으로 연간 소비량 산출(일일소비량\*365일)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민영양통계>식품섭취량>식품별 섭취량(www.khidi.or.kr)

〈그림 I -3-4〉 2008~2017년 성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 연령대별로는 주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키위 섭취량이 비교적 높음

- 2017년 기준 영유아(1~5세)와 어린이(6~11세)의 키위 섭취량은 연간 500g 이상으로 평균 섭취량(548g)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3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의 키위 섭취량도 평균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  
- 30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대의 연간 키위 섭취량은 580g,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대의 섭취량은 635g으로 집계됨
- 반면 청소년(12~18세)과 청년(19~29세), 고령(65세 이상)층의 키위 섭취량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I -3-6〉 2008~2017년 연령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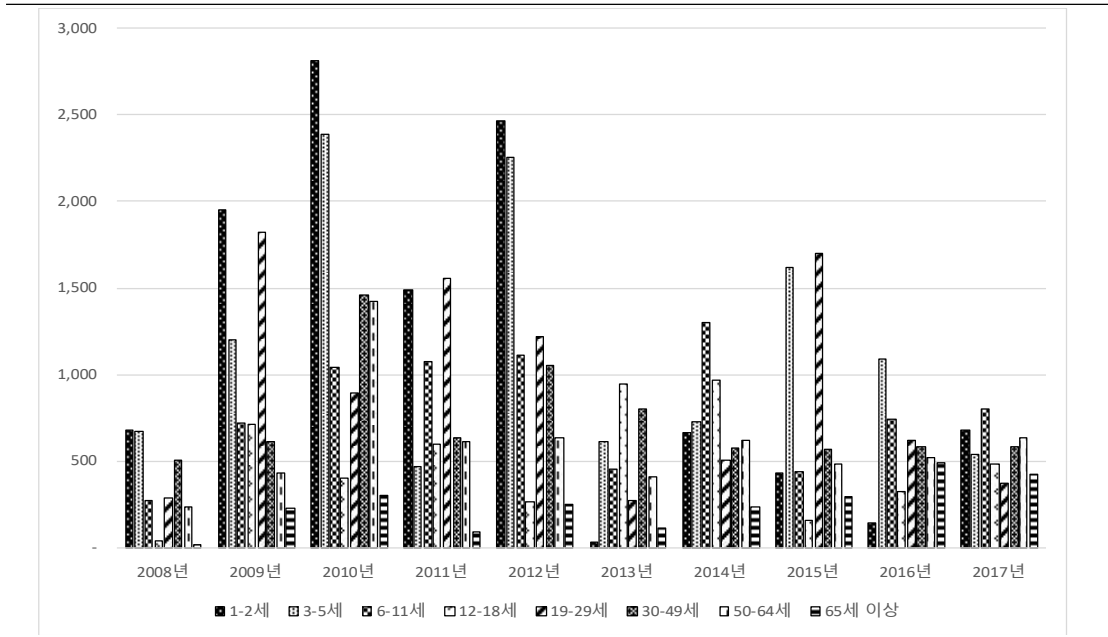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세	679	1,949	2,811	1,486	2,467	33	668	431	146	679
3-5세	675	1,201	2,387	471	2,252	610	726	1,617	1,091	540
6-11세	274	715	1,040	1,073	1,110	456	1,303	438	741	803
12-18세	40	712	402	595	266	942	967	161	329	485
19-29세	285	1,825	894	1,555	1,215	274	507	1,705	621	372
30-49세	507	610	1,460	635	1,048	803	577	569	584	580
50-64세	234	434	1,424	613	635	405	621	482	518	635
65세 이상	18	226	303	88	248	113	237	296	493	423

\* 주: 일일 섭취량(g)을 바탕으로 연간 소비량 산출(일일소비량\*365일)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민영양통계>식품섭취량>식품별 섭취량(www.khidi.or.kr)

<그림 I -3-5> 2008~2017년 연령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 4. 수출현황

### 1) 키위 수출현황

#### □ 2018년 한국산 키위의 수출물량은 438톤으로 전년대비 60.8% 감소함

- 동년 수출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對일본 수출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한국산 키위의 일본시장 진입에 따라 전체 수출물량이 급격히 증가함
    - 일본은 2016년 약 2만 6,000톤의 키위를 생산하였으나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그린키위로, 골드키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내 키위농가에서 일본의 잔류농약기준치 등 안전성 기준규격을 준수하지 못해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는 키위 수출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한국산 키위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으로, 전체 물량의 63.7%에 달하는 279톤이 수출된 것으로 집계됨
- 이 외에도 對홍콩 수출물량은 약 91톤(20.8%)으로 나타나며, 말레이시아(6.6%), 미국(5.7%), 싱가포르(2.7%) 등지로 수출되고 있음

〈표 1 -4-1〉 2009~2018년 한국 키위 수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0.8	12.7	0.5	0.3	0.9	154.5	257.6	1,389.4	1,118.4	438.0
1	일본	-	0.3	-	-	0.1	2.0	59.9	1,178.7	1,064.1	279.4
2	홍콩	-	0.3	0.5	-	0.4	140.5	103.9	121.4	11.9	90.7
3	말레이시아	-	0.5	-	-	-	-	5.1	38.0	20.8	28.9
4	미국	-	2.0	-	-	-	-	10.9	17.0	-	25.2
5	싱가포르	-	9.0	-	-	-	8.4	58.9	26.8	20.2	12.3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 국내 키위의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수출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익년 5월까지 이어짐

- 일본으로의 수출은 11월부터 시작되어 4월까지 진행되며, 2월과 3월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對홍콩 수출은 10월부터 시작되며, 12월에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됨
  - 또한 3월과 4월에 약 3톤가량의 키위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I -4-2> 2018년 한국 키위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54.7	89.1	86.8	23.8	2.8	-	-	65(kg)	89(kg)	34.8	49.4	96.5
1 일본	29.6	88.9	86.6	20.9	-	-	-	-	-	-	12.0	41.3
2 홍콩	-	-	-	2.9	2.8	-	-	-	-	11.1	25.4	48.5
3 말레이시아	-	-	0.1	-	-	-	-	-	-	10.9	11.2	6.7
4 미국	25.1	80(kg)	-	-	-	-	-	-	-	-	-	-
5 싱가포르	-	-	-	-	-	-	-	-	-	11.6	0.7	-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한국산 키위의 수출단가는 kg당 4.7달러(한화 약 5,593원)로 전년대비 67.9% 증가함

- 이는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히 對홍콩 수출단가가 크게 증가함
  - 홍콩으로의 수출단가는 전년도 7.2달러(한화 약 8,568원)/kg에서 10.1달러(한화 약 1만 2,019원)/kg으로 약 40.3% 증가함
-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對일본 수출단가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kg당 2.7달러(한화 약 3,213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남

<표 I -4-3> 2009~2018년 한국 키위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3.7	3.0	3.8	7.9	8.8	8.6	5.9	3.2	2.8	4.7
1 일본	-	6.6	-	-	8.0	4.2	3.6	2.8	2.6	2.7
2 홍콩	-	3.1	3.9	-	12.5	8.9	7.6	5.2	7.2	10.1
3 말레이시아	-	2.7	-	-	-	-	6.7	3.5	4.2	6.1
4 미국	-	2.7	-	-	-	-	4.0	3.8	-	4.0
5 싱가포르	-	2.9	1.5	-	2.1	5.8	6.3	7.2	7.2	6.5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 對대만 수출추이

□ 2019년 9월 대한민국과 대만 양국이 한국산 키위(참다래)에 대한 수출검역요건에 동의함에 따라 공식적인 수출이 가능하게 됨

- 이전까지는 한국산 키위의 수출검역이 타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對대만 수출실적 역시 존재하지 않음
- 한국산 키위의 수출검역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대만 측 우려 검역 병해충)
    - 꽃썩음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morsprunorum*)
    -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 꼭지썩음병(*Diapotha actinidiae*)
  - (선과장 등록) 대만으로 참다래를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자는 선과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과수원 이행사항) 수출과수원 재배농가는 대만 측 우려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약제 농도 등)을 보관해야 함
  - (선과장 이행사항)
    - 선과장은 검역관이 검역, 병해충 분류 및 기타 필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 장소, 관련 기구 및 장비, 병해충 피해에 대한 그림설명 자료를 갖추어야 함
    - 매년 선과 작업 개시 전, 선과장 운영자는 선과장 내 검역 병해충 제거를 위해 적절한 병해충 방제조치를 실시하며 필요 시, 선과장 청결을 위해 소독을 실시함
    - 선과장에는 검역 병해충에 감염된 참다래를 선별할 수 있고 대만 수출용 참다래의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관리책임자를 최소 한 명 두어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육 기록과 관련 정보는 현지 조사를 위해 선과장에 보관되어야 함
    - 선과장은 포괄적인 관리작업 매뉴얼과 포장기록을 구비해야 하며, 대만 수출용이 아닌 참다래가 선과장에 보관되거나 또는 선과장 내에서 처리될 경우, 반드시 대만 수출용 참다래와 적절히 구역을 분리해야 함. 또한, 해당 참다래와 대만 수출용 참다래 포장은 동시에 선과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나, [별표1]의 안전조치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참다래와 동시에 선과를 수행할 수 있음. 포장 기록은 현지 조사를 위해 1년 간 보관되어야 함

- 대만 수출용 참다래의 경우, 포장 작업은 선과장에서 수행 및 완료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함. 참다래를 분류 및 선별하고 흙, 나뭇가지, 잎, 잡초, 종자 및 기타 식물 잔여물이 부착되거나 피해과, 기형과 또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과라고 의심되는 과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버려진 과실은 매일 뚜껑을 덮은 용기에 넣고 버리거나, 폐기되어야 함
- (포장상자 요건) 대만 수출용 참다래 각 포장 박스는 선과장명 또는 등록 코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 (수출검역)
  - 참다래 수출 검역 작업은 선과장 안에서 실시함. 포장된 과실은 한국 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하고 선과장명 또는 등록 코드 번호 라벨이 부착된 포장 박스에 넣었는지 확인함. 검역 완료 된 샘플은 각 검사단위별 포장의 최소 2% 이어야 함
  - 검역 도중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검사단위의 화물은 대만으로 수출할 수 없음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참다래 화물에 대해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함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in compliance with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Kiwifruits from Korea to Taiwan”*

( “이 화물은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역이 실시되었음” )

- (제3의 국가 또는 지역경유) 대만 수출 참다래를 제3의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여 대만의 규정인 “특정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에 대한 검역 요건 ”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입검역)
  - 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은 본 검역 요건에 부합해야 함. 만약 화물에 검역본부 발급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 내용이 본 검역 요건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식물검역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됨
  - 수입 검역 절차, 방법, 샘플 검사는 대만의 “식물 보호와 검역 법” 과 관련 검역 규정에 따라 실시함
  - 흙, 나뭇가지, 잎, 잡초, 종자와 기타 식물의 잔여물이 부착된 참다래,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승인된 선과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참다래는 대만 수입이 금지됨



- (기타요건)

- 대만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음
- 한국의 병해충 상황 변화와 한국산 참다래의 병해충 발견에 따라, BAPHIQ는 추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검역 병해충 목록과 관련 검역 조치의 변경을 위해 검역본부와 협의할 수 있음
- 해당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의 「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 가능함
- \* 한국산 키위(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 <http://www.qia.go.kr/viewLawWebAction.do?id=168008&type=0>

## II. 대만 시장동향

### 1. 생산현황

#### 1) 재배현황

□ 대만은 일부 지역에서 매우 소량의 키위가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내수 수요는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

- 대만 난터우(南投)와 화련(花蓮) 일부 지역에서 키위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14)</sup>
  - 해당 지역에서는 유기농법으로 키위를 재배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매우 미미해 공식적인 통계치는 확인되지 않음
  - 현지 업계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소량 생산된 키위는 단가가 높아 시장 내 유통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따라서 유통매장에서는 시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sup>15)16)</sup>
- 대만에서 키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산지와 상관없이 특정 브랜드의 수입산 키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자국산 키위는 시장 내 거의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전혀 없는 품목으로, 내수 수요는 거의 전량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림 II-1-1> 대만산 키위 재배 전경



\* 주: 난터우 지역(南投仁愛萬豐村的曲冰部落) 키위재배 전경

\* 출처: 대만주부생활소비협동조합(台灣主婦聯盟生活消費合作社)(www.hucc-coop.tw)

14) 현지 소매유통채널 PX마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7.)

15) 현지 소매유통채널 RT마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8.)

16) 현지 소매유통채널 PX마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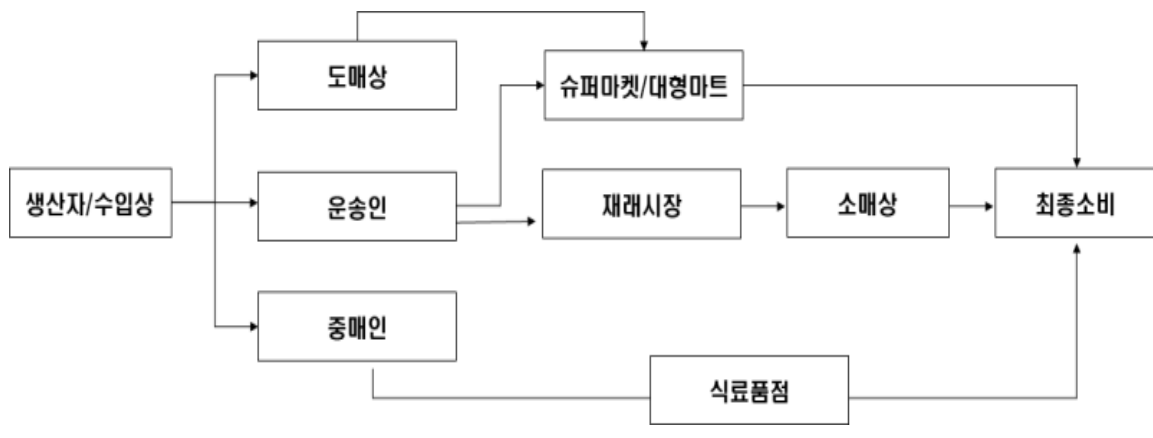
## 2. 유통현황

### 1) 유통구조

□ 대만에서 키위는 신선농산물 유통구조<sup>17)</sup>에 따라 유통되고 있음

- 대만의 농산물 유통기구는 산지수집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으로 분류됨
  - 산지수집시장은 지방정부가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정부와 조합의 공동운영 또는 조합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구입자는 지역 소매상, 전문 도매상, 수출업자, 가공업자 등이며, 판매자는 산지 수집상, 농회 생산자 조합, 도매상 등임
- 수입산 키위는 수입상으로부터 도매상, 운송인, 중매인을 거쳐 슈퍼마켓, 재래시장, 식료품점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됨

〈그림 II -2-1〉 대만 신선농산물 유통구조



\* 출처: Researchgate를 토대로 재구성

### 2) 도·소매가격

□ 2018년 대만의 수입산 키위 도매가격은 평균 NT\$111.9(한화 약 4,339원)/kg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최근 5년간 키위 도매가격은 kg당 NT\$92.8 ~ 133.8(한화 약 3,594원 ~ 5,183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NT\$112.7(한화 약 4,365원)임
- 2016년의 도매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년 도매물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17) 대만의 농산물 유통경로는 곡물, 담배, 사탕수수 등 정부 수매 농산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민간 상인과 생산자 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표 II-2-1〉 2014~2018년 대만 키위 연평균 도매가격 추이

(단위: NTS/kg)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89.3	73.0	133.8	120.7	111.9	112.7

\* 출처: 대만도매시장가격정보사이트(農產品批發市場交易行情站)(amis.afa.gov.tw)

- 일반적으로 연중 유사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6월부터 단가가 상승하기 시작해 7~8월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이후 키위 단가는 감소하기 시작해 익년 5월까지 내림세를 보임

〈표 II-2-2〉 2014~2018년 대만 수입산 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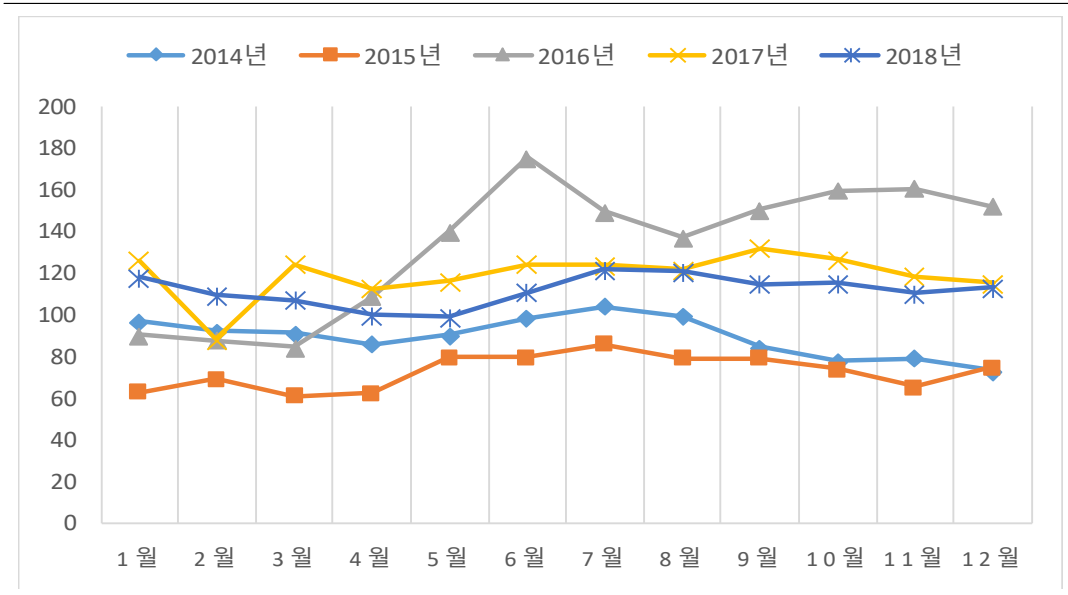
(단위: NTS/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4년	97.0	92.3	91.3	86.0	90.1	98.4	104.1	99.6	84.5	78.0	79.2	73.3	89.5
2015년	63.1	69.4	61.3	62.7	80.0	79.8	85.8	79.2	79.2	74.1	65.4	74.8	72.9
2016년	90.4	88.1	84.6	108.9	139.9	175.5	149.7	137.2	150.4	159.9	160.6	152.1	133.1
2017년	126.4	88.6	124.3	112.8	116.2	124.5	123.7	121.7	131.9	126.8	118.6	115.1	119.2
2018년	117.9	109.6	106.9	100.0	98.8	111.0	121.8	121.0	114.6	115.3	110.6	113.3	111.7

\* 주: 타이페이 제2도매시장 물량밖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타이페이 제2도매시장 출하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 출처: 대만도매시장가격정보사이트(農產品批發市場交易行情站)(amis.afa.gov.tw)

〈그림 II-2-2〉 2014~2018년 대만 수입산 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 2018년 대만의 수입산 키위 도매물량은 총 93톤으로 전년대비 19.8% 감소함

- 대만의 키위 도매물량은 연중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후 10월경부터 도매물량은 감소하기 시작해 익년 5~6월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표 II-2-3〉 2014~2018년 대만 수입산 키위 월별 도매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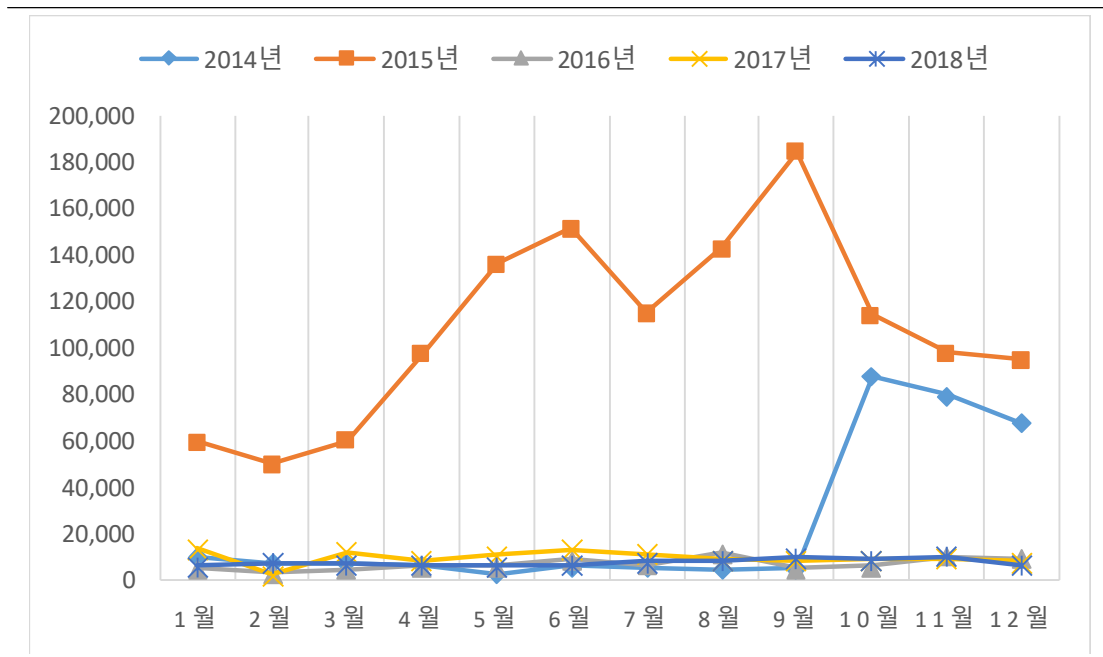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4년	10	7	8	7	3	6	6	5	5	88	80	68	292
2015년	60	50	60	98	136	152	115	143	185	114	98	95	1,306
2016년	5	3	5	6	6	9	7	12	5	6	11	9	84
2017년	14	2	12	9	11	13	11	9	8	9	10	8	116
2018년	6	8	7	7	6	6	8	8	10	9	10	7	93

\* 주: 타이페이 제2도매시장 물량밖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타이페이 제2도매시장 출하물량만을 기재함

\* 출처: 대만도매시장가격정보사이트(農產品批發市場交易行情站)(amis.afa.gov.tw)

〈그림 II-2-3〉 2014~2018년 대만 수입산 키위 월별 도매물량 추이



### 3) 제품분석<sup>18)</sup>

□ 대만에서 키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과일소매점,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음

- 백화점에서는 자체적으로 키위를 선별하여 랩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뒤 제품명, 중량, 가격 등이 표기된 바코드를 부착하여 판매함
- 대형마트에서는 제스프리社의 포장 그대로 판매하거나 별도의 포장 없이 날개로 상온 매대에서 판매하기도 함
- 도매시장에서는 별도의 포장 없이 구매 개수만큼 비닐 등에 키위를 담아 판매함  
- 도매시장에서는 원산지 품종, 가격 등 간단한 정도만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림 II -2-4〉 대만 소매유통채널별 키위 판매 현황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 대만의 주요 소매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전량 제스프리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8월, 대만 현지에서 유통되는 44개의 키위는 전량 뉴질랜드산 제스프리인 것으로 조사됨

18) 2019년 8월 자체 현지조사를 통해 13개 소매유통채널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제스프리는 뉴질랜드산과 이탈리아산 키위를 교차로 공급하며 대만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뉴질랜드산 키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연중 공급됨
  - 이탈리아산 키위는 뉴질랜드산이 공급되지 않는 1월부터 3월까지 대만 내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수입됨
- 이 외에도 프랑스산, 이탈리아산, 칠레산이 시장 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공급시기가 현지조사 시기와 일치하지 않았고, 또 그 물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소매유통채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임<sup>19)</sup>
- 대만산 키위는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며 인지도 역시 매우 낮아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산지에서 일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sup>20)</sup>

□ 현지 소매유통채널에서는 그린키위, 골드키위, 점보키위(그린 및 골드)가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음

- 그린키위는 헤이워드 품종이며, 골드키위는 선골드로 확인됨
- 점보키위는 일반키위보다 과가 약 1.5배에서 2배가량 큰 품종으로, 점보그린 키위와 점보골드키위로 구분되어 판매됨

<그림 II-2-5> 점보골드키위, 골드키위 크기 비교



\*출처 : 제스프리키위(www.zesprikiwi.com)

19) 현지조사 전문가인터뷰(IDI) 결과 종합  
20) 현지조사 전문가인터뷰(IDI) 결과 종합

□ 백화점에서의 키위 판매가가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도매시장 > 대형마트 순으로 나타남

-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개당 평균 NT\$28(한화 약 1,087원)로 대형마트 대비 약 1.5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임
  - 그린키위 1개당 최소 NT\$9.9(한화 약 384원)에서 최대 NT\$24.8(한화 약 963원)에 판매되고 있음
-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개당 평균 NT\$27.2(한화 약 1,056원)임
  - 그린키위 1개당 NT\$20(한화 약 776)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골드키위의 가격 역시 동일함
  - 대체로 제품 및 품종별 가격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판매하고 있어 타 유통매장에서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그린키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음
  - 가격인하 프로모션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도매시장은 상자채로 납품하여 날개로 판매하므로 개당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개당 평균 NT\$19.8(한화 약 769원)임
  - 그린키위 1개당 최소 NT\$9.5(한화 약 369원)에서 최대 NT\$15.6(한화 약 606원)에 판매되고 있음

<표 II-2-4> 2019년 대만 소매유통채널별 키위 평균 판매가격 비교

점포명		그린	점보그린	골드	점보골드
백화점	제이슨마켓	20.9	24.0	21.5	34.1
	City Super	27.3	-	-	-
	Fresh Mart	24.8	-	37.3	-
	백화점 평균	24.3	24.0	29.4	34.1
대형마트	까르푸	9.9	-	19.4	-
	RT마트	13.0	22.4	-	28.0
	頂好웰컴마트	9.5	22.0	13.8	31.0
	PX마트	15.6	-	13.8	-
	대형마트 평균	12.0	22.2	15.7	29.5
도매시장	제1도매시장(萬大路第一果菜市場)	20.0	-	20.0	-
	빈장과채도매시장(濱江果菜市場)	20.0	-	20.0	41.7
	도매시장 평균	20.0	-	20.0	41.7

\* 주1: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기타 식료품점 등 13개 매장, 44개 제품 대상 조사 결과  
 \* 주2: 제품 포장 단위가 매장별로 달라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균가 비교를 진행하였음  
 \* 주3: 동일 브랜드 매장이거나 지점이 다른 경우 함께 평균을 내어 계산함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 품종별로는 골드키위가 그린키위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 키위보다는 점보키위가 고가에 유통됨

- 골드키위는 개당 평균 NTS22.5(한화 약 867원), 그린키위는 개당 평균 19.6(한화 약 755원)으로, 개당 약 100원(NT\$3.2)가량 비싸게 판매됨
- 점보키위는 일반키위에 비해 약 146원(NT\$3.8)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
  - 점보골드키위는 개당 평균 NTS26.3(한화 약 1,011원)로 일반 골드키위 평균가격인 NTS22.5(한화 약 865원)보다 약 1.2배 고가에 판매됨
  - 점보그린키위 역시 일반그린키위 NTS19.6(한화 약 755원)보다 1.2배 비싼 개당 NTS23.1(한화 약 890원)에 판매됨

<표 II-2-5> 2019년 대만 내 유통되는 키위 종류별 가격대 분석

(단위 : NTS/개)

구분	그린			점보그린			골드			점보골드		
가격대	9.5~24.8			21.1~27.8			13.8~37.3			28~41.7		
평균가	19.6			23.1			22.5			26.3		
저/중/고 가격대	저가	중가	고가	저가	중가	고가	저가	중가	고가	저가	중가	고가
	9.5~ 9.9	13~ 20	22~ 27.3	21.1~ 21.8	23 23	27.8 27.8	13.8~ 15.8	19~ 25	33~ 37.3	28~ 29.5	32.4~ 33	35.8~ 41.7

\* 주: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기타 식료품점 등 13개 매장, 41개 제품 대상 조사 결과

\* 주2: 유기농그린키위, 유기농골드키위의 경우 가격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2개 유통매장 3개 제품)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 유기농 키위는 일반 키위보다 약 1.5배가량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
  -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유기농 그린키위의 가격은 개당 NTS29.8(한화 약 1,157원), 유기농 골드키위는 개당 NTS33.8(한화 약 1,313원)임
  - 유기농식품 전문판매점에서는 유기농 그린키위가 개당 NTS30(한화 약 1,165원)에 판매됨

<그림 II-2-6> 대만의 유기농 키위 판매 현황



웰컴마트(대형마트) / 유기농 키위(그린 및 골드)

유기농 과채판매점 Green&Safe / 유기농 그린 키위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 키위는 별도의 포장 없이 매대에서 판매되거나 플라스틱포장, 랩포장, 판촉용 밀폐용기 등에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음

-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일반 그린키위, 골드키위 등은 별도의 포장 없이 매대 진열되어 낱개로 판매되거나 플라스틱 상자에 4~6개 들이로 포장되어 상온에서 판매됨
- 점보키위는 제스프리社의 자체 종이 포장에 담겨서 판매되거나 판촉물용 밀폐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음
- 유기농 키위는 일반 플라스틱 포장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포장으로 5개가 묶여 판매되고 있음
- 일부 유통매장의 경우, 낱개 키위를 자체 유통매장에서 플라스틱, 랩 등으로 4개입으로 묶어서 포장하여 판매함

<그림 II-2-7> 대만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키위 포장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 제스프리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대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 영양성분이 높다는 점과 키위 효소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홍보문구로 기재한 판촉 포스터를 유통매장별로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음
- 제스프리는 대만 시장 진출초기부터 각종 프로모션, TV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대만 소비자들이 ‘제스프리가 곧 키위’ 라는 인식을 형성하도록 함
- 제스프리가 키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영양성분을 내세워 홍보한 결과, 여전히 대만 소비자들의 키위 소비(구매)요인은 건강에 좋은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sup>21)</sup>

<그림 II -2-8> 제스프리의 키위 홍보방식



\* 출처: 자체 현지조사 결과

- 대형마트에서는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키위를 판매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함
- 제스프리는 대형마트 한 지점 당 연간 200회의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으며<sup>22)</sup>, 이러한 가격 프로모션이 판매에 주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판촉물 증정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를 촉진함
- 판촉용 밀폐용기에 키위를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제스프리 로고가 인쇄된 연필깎이, 연필, 키위 섭취용 스푼 등 판촉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함

21) 현지조사 전문가인터뷰(IDI) 결과 종합  
 22) 현지조사 전문가인터뷰(IDI) 결과 종합

<그림 II -2-9> 대만 내 제스프리 프로모션 예시

<p>모형 홍보물 제이슨마켓 비양광장점</p>	<p>매대 부착 홍보물 웰컴마트 중샤오푸싱점</p>	<p>포스터 홍보물 제1도매시장</p>
<p>증정품 포함 프로모션 웰컴마트 중샤오푸싱점</p>	<p>증정품 포함 프로모션 웰컴마트 중샤오푸싱점</p>	<p>증정품 포함 프로모션 웰컴마트 중샤오푸싱점</p>

\* 출처 : 자체현지조사 결과

### 3. 소비현황

□ 대만의 시장조사기업 피코스(Phycos)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대만의 1인당 연간 키위 소비량은 10개로 나타남<sup>23)</sup>

- 열대과일의 주산지인 대만에서 자국 내 주력 생산제품이 아닌 수입과일 키위에 대한 소비가 높은 이유는 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키위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임
- 대만 소비자들은 뉴질랜드 제스프리의 그린, 골드키위를 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부 유기농 키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기농 키위의 수입 규모는 2009년 대비 2012년 137%가량 성장하였음
  - 전체 키위시장에서 유기농 키위의 비중은 1% 미만(2012년 기준)에 불과하나, 점차 시장 내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23) 가장 최신 통계치로 확인됨(2019-07-31)

#### 4. 수입현황

##### 1) 대만 키위 수입현황

□ 2018년 대만의 키위 수입물량은 3만 6,776톤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함

-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와 이탈리아로, 전체 수입물량의 약 95.4%를 차지함
  -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물량은 3만 톤가량으로 전체 수입의 83.9%를 차지하며, 이탈리아산 키위는 전체 수입의 11.5%인 4,214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산과 이탈리아산 키위는 모두 특정 브랜드(제스프리)의 상품으로, 대만 시장 내 특정 브랜드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제스프리 키위는 연중 대만 시장에 공급되며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24)</sup>
- 이 외에도 프랑스산, 칠레산 키위가 수입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 동년 프랑스산 키위 수입물량은 736톤으로 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칠레산 키위는 1.2% 수준인 443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동 시점 한국산 키위는 대만과의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수입실적이 존재하지 않음
  - 2019년 9월 한국과 대만이 한국산 키위의 수출검역요건에 동의함에 따라 향후 대만의 공식적인 한국산 키위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표 II-4-1〉 2009~2018년 대만 키위 수입물량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24,548	26,550	29,639	35,763	30,250	31,697	42,861	47,652	42,019	36,776
1	뉴질랜드	19,387	19,555	23,575	30,010	21,330	22,945	32,500	36,232	30,309	30,851
2	이탈리아	2,060	3,496	2,684	2,107	3,339	4,655	5,467	6,164	7,696	4,214
3	프랑스	1,951	2,934	2,451	1,549	3,617	2,308	2,692	2,462	2,619	736
4	칠레	492	76	157	1,692	1,308	1,024	1,420	2,306	733	443
5	미국	70	126	143	215	424	370	330	223	385	371
6	중국	580	352	623	182	215	358	423	242	258	151
7	일본	7	11	7	8	17	38	29	22	19	10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24) 현지 소매유통채널 PX마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7.)

□ 대만은 연중 키위를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인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의 수입시점이 교차되는 양상을 보임

- 뉴질랜드산 키위는 2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지며, 이탈리아산 키위는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수입이 진행됨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뉴질랜드산과 이탈리아산 키위는 모두 특정 브랜드(제스프리)의 상품으로, 해당 브랜드는 대만시장 내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뉴질랜드산 키위는 5월부터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6월에 최대물량이 수입되며, 이후에도 12월까지 최소 1천 톤에서 4천 톤 이상의 많은 물량이 매월 수입됨
  - 이탈리아산 키위는 뉴질랜드산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11월경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익년 뉴질랜드산 키위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약 4월까지 수입되어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 이 외 국가들은 주로 뉴질랜드산의 수입물량이 저조한 1~4월에 수입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산 키위 수입은 12월부터 익년 4월까지 진행되며, 미국산은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됨
  - 반면 칠레산은 프랑스산과 미국산의 수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4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해 8월까지 진행되고 있음

〈표 II-4-2〉 2018년 대만 키위 월별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1,741	1,023	1,474	1,207	4,976	5,421	4,644	3,058	4,617	3,831	2,815	1,969
1 뉴질랜드	-	15	25	745	4,860	5,284	4,550	3,008	4,611	3,812	2,619	1,321
2 이탈리아	1,384	717	1,128	231	-	-	-	-	-	-	194	560
3 프랑스	181	195	227	56	-	-	-	-	-	-	-	77
4 칠레	-	-	-	48	115	137	94	48	-	-	-	-
5 미국	173	76	61	61	-	-	-	-	-	-	-	-
6 중국	2	18	34	65	-	-	-	1	7	14	-	11
7 일본	1	2	0.4	-	-	-	-	-	-	4	3	-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대만의 키위 수입단가는 kg당 3.2달러(한화 약 3,808원)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단가는 3.4달러(한화 약 4,046원)/kg로 확인됨
  - 반면 동일 브랜드인 이탈리아산 키위는 kg당 2.3달러(한화 약 2,737원)로 뉴질랜드산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음
- 수입산 키위 중 일본산 키위가 kg당 6.9달러(한화 약 8,211원)로 가장 고가에 유통되고 있으며, 반대로 칠레산과 중국산 키위가 kg당 1.5달러(한화 약 1,785원)로 가장 저가에 수입됨

〈표 II-4-3〉 2009~2018년 대만 키위 수입단가

(단위: 달러/kg,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YoY	CARG
전 세계	1.3	1.4	1.7	2.0	2.0	2.7	2.8	2.8	3.0	3.2	6.3	9.6
뉴질랜드	1.3	1.4	1.8	2.1	2.3	3.2	3.1	3.2	3.4	3.4	0.0	10.4
이탈리아	1.2	1.2	1.2	1.3	1.2	1.5	1.8	1.6	1.9	2.3	17.4	7.5
프랑스	1.1	1.3	1.3	1.4	1.4	1.8	1.9	1.8	2.1	2.4	12.5	7.0
칠레	0.9	1.1	1.2	1.1	1.2	1.8	1.4	1.6	1.8	1.5	-20.0	3.5
미국	2.9	2.1	2.7	2.3	2.5	2.7	2.8	2.8	2.8	3.0	6.7	4.0
중국	0.7	0.7	0.7	1.0	1.3	0.9	1.0	1.1	1.3	1.6	18.8	9.6
일본	3.4	3.1	2.4	3.3	4.4	5.1	5.7	5.1	6.0	6.8	11.8	9.1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 수입제도 및 규격

### 가. 통관 및 검역

□ 대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 중 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품목의 통관 및 검역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관할하고 있음

- 해당되는 품목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동식물검역을 진행한 뒤,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 주관 하에 표준검역국에서 수입화물의 내용, 규격, 라벨링 등을 포함한 검역검사를 진행함
- 세관은 검역검험기관의 결과에 따라 통관을 결정함
-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음<sup>25)</sup>

---

· 항공화물운송장(AWB)	· 위임장(위탁신고)
· 송장 또는 상업송장	· 가격신고서 2부
· 수입신고서	· 원산지증명서(C/O)
· 포장명세서	· 카탈로그 또는 매뉴얼 등

---

□ 대만 내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의 식품이력추적시스템(食品追溯追踪系统之食品业者)이 실시되며 수출식품의 식품이력이 투명해야 수출이 가능해짐

- 식품영양성분 및 라벨링 규정과 식품성분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로,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시 가해지는 처벌은 기존보다 10배 이상 강력해짐
- 이는 대만 내, 2014년 ‘쓰레기 식용유’ 식품파동과 2015년 5월 3일 대만 일부 무역업체가 수입이 금지된 일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만에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임
-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외 8지역의 수입을 전면금지하였으며 수산물, 찻잎(茶叶) 등 3개 분류 내 800개 이상의 ‘고위험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일본정부나 국제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방사선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
- 철저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대만정부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25) 타이페이 세관 (etaipei.customs.gov.tw)



□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 Inspection, 상품검험법)

-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은 상품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검험법을 시행함
- 국가 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농·공산품을 비롯하여 수출입되는 모든 농·공산품이 해당 법령의 규제를 받음
- BSMI인증은 제품에 따라 △선적물검사(T30001) △모니터링제도(M30001) △제품 인증등록(RPC)(R30001) △적합성선언(DOC)(D30001) 등 4개 절차로 분류됨
- 샘플이나 전시용품과 같은 비매품은 검사를 면할 수 있으나 상품검사 필수품목이 해당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모두 대만 내 수출입 및 판매가 금지됨

나. 라벨링

□ 대만의 식품 라벨링은 대만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의 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라벨링은 반드시 중국어 번체로 기재되어야함

- 식품 수출입 위생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식품 범위로는 일반식품, 식품첨가물, 식품도구, 특수영양식품, 용기 및 세정제 등이 포함됨
- 반드시 중국어 번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오류 혹은 미기입시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어 기한 내 회수 혹은 수정 통지를 받게 됨

<표 II-4-4> 대만 식품 라벨링 기재 표시 사항

- 상품명
- 원재료의 명칭
- 순중량, 부피, 수량 등
- 식품첨가물(두 키워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였을 경우)
- 국내 제조업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 원산지
- 유효기간
- 영양성분표
- 유전자변형식품원료
- 관할 당국이 지정한 기타 사항

\* 주: TFDA 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2019-06-12 개정)

\* 출처: 대만식약청(TFDA)(www.fda.gov.tw)

## 다. 인증

□ 대만 정부는 자국 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관련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5월, 대만정부는 유기농산품에 대한 유기농업촉진법(有機農業促進法)<sup>26)</sup>을 발표하고 유기농업에 관한 정의 및 인증에 관련된 제도를 공고한 바 있음
  - 식품 라벨에 ‘유기(有機)’ 또는 ‘Organic’ 이란 문구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대만정부가 인정한 검증기구나 대만행정원농업위원회(台灣農業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함
  - 수입산 유기농산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려면 대만과 동등한 유기농 관련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제품만이 수출이 가능함
  - 대만 시장에서 수입산 유기농산품을 판매하려면 대만 및 해당 수입국가간 상호가 인정한 검증기구의 검증을 통과한 후 농업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친 뒤, 대만 정부에서 유기농 표기문건을 발급받아야 관련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한국은 대만과 유기농식품 관련 상호인증 체결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대만 유기농식품의 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유기농식품 인증 관련 협의가 필요함

26) 대만 농림본부(農糧署全球資訊網)(www.afa.gov.tw)

### III. 시장현황 비교 · 분석

#### 1. 시장현황 비교

□ 대만에서는 소량의 키위가 생산되나 산지에서 소진되며, 내수 수요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은 그린키위 · 골드키위 · 레드키위 등 다양한 품종이 매년 약 2만 톤가량 생산되는 반면, 대만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아주 소량이 생산되며 대부분의 수요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만은 연간 약 3만 6,776톤가량의 키위를 수입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와 이탈리아로 양분됨
- 2019년 9월부터 한국과 대만 간 수출검역이 타결되어 공식적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對대만 수출 시 기본관세 20%가 부과됨

구분		한국	대만
생산	생산량(2018)	20,000톤(e) <sup>1)</sup>	소량 생산, 수입 의존
	출하시기	10~11월	×
	생산품종	그린(헤이워드), 골드(호트A16), 레드(홍양) 등	×
유통	도매물량(2018)	9,274톤 <sup>2)</sup>	93톤 <sup>3)</sup>
	도매가격(2018)	3,223원/kg	4,339원/kg <sup>4)</sup>
수출입	수출입물량(2018)	[전체] 438톤 / 대만수출 ×	[전체] 36,776톤 / 한국산 수입 ×
	수출입가격(2018)	[평균] 5,593원/kg / 대만수출 ×	[평균] 3,808원/kg / 한국산 수입 ×
	관세율	2019년 9월부터 검역타결에 따라 수출 가능하며 기본관세 20% 부과	

주1) 추정치. 국내 키위 생산량에 대한 공식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약 22,000~23,500톤가량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됨(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남대학교 인터뷰 결과)

주2) 국내 도매물량은 국산과 수입산 반입물량을 합산한 수치임

주3) 타이페이 제2도매시장 반입물량 기준

주4) 환율기준 : 1USD=1,190원, 1NTD=38.84원

\*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kostat.go.kr), 대만도매시장가격정보사이트(農產品批發市場交易行情站)(amis.afa.gov.tw), GTA(Global Trade Atlas),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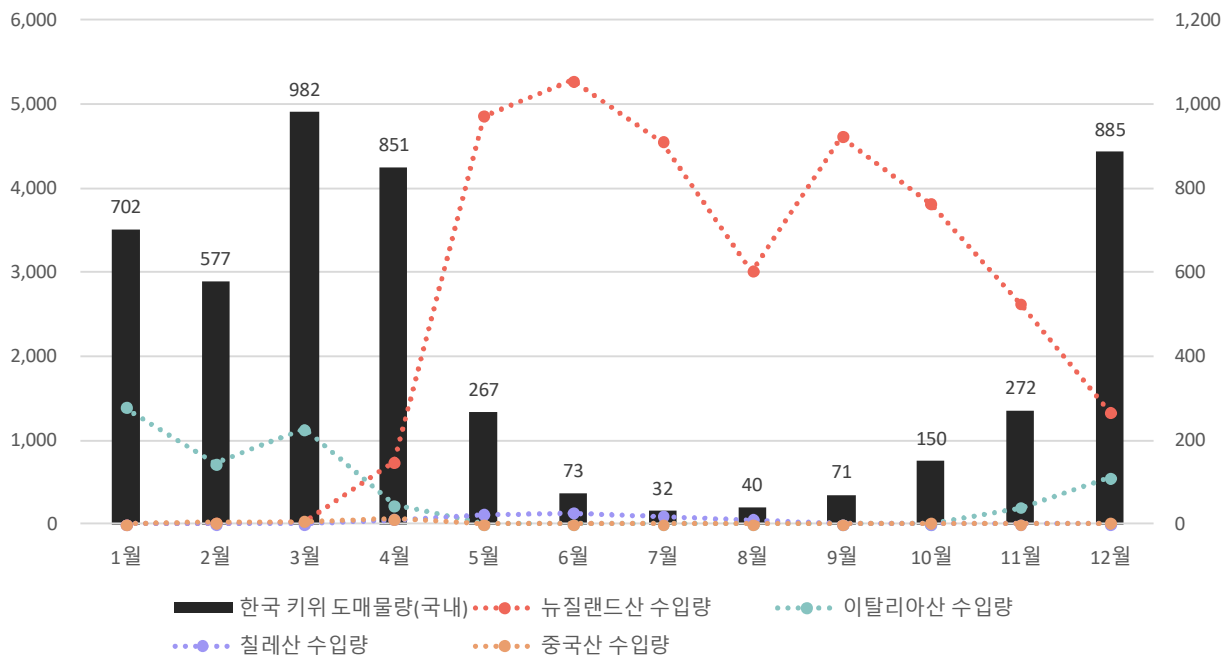
## 2. 수출국 시장분석

□ 대만의 키위 수요는 대부분 뉴질랜드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외 시기에는 이탈리아산으로 충당함

- 뉴질랜드산과 이탈리아산 모두 특정 브랜드(제스프리)의 상품으로, 공급시기를 교차하여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함
- 뉴질랜드산 키위는 2월부터 12월까지 유통되며, 이탈리아산 키위가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되어 물량이 중단되지 않고 공급되는 특징을 나타냄

구분	물량	유통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입산	뉴질랜드	30,851톤(83.9%)		■	■	■	■	■	■	■	■	■	■	■	■	■
	이탈리아	4,214톤(11.5%)	■	■	■	■										
	프랑스	736톤(2.0%)	■	■	■	■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HS Code 0810.50 기준

□ 특정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아 한국산 키위 진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인지도는 전무하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와 동종 품목으로 경쟁할 경우 시장진입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품질수준 향상 및 신제품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음

소비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산 매우 소량 생산되어 영향력 없음</li> <li>· 특정 브랜드(제스프리)의 시장 점유율 및 소비자 인지도, 로열티 매우 높음</li> <li>· 키위 선호도 높은 편으로 과가 크고 당도가 높을수록 선호</li> <li>· 키위의 건강적 효능(엽산, 소화에 도움)이 구매요인으로 작용</li> </ul>
품질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육이 무르고 당도가 높으며 일반적인 제스프리 키위와 유사한 품질수준</li> </ul>
한국산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2019년 9월부터 수출검역 타결되어 공식적인 수출 가능</li> <li>· 한국산 인지도 전무하며, 제스프리와 경쟁 시 가능성 희박</li> </ul>

\* 출처 : 자체현지조사 결과(매장방문, 전문가인터뷰), 대한민국 통계청(kostat.go.kr)

□ 원산지별 가격동향

구분	자국산	뉴질랜드산	이탈리아산	프랑스산	한국산
수입단가	-	4,046원/kg	2,737원/kg	2,856원/kg	-
도매가	-	-	-	-	-
소매가	-	(그린) 761원/개 (골드) 873원/개			-

주1) 뉴질랜드산 소매가는 현지조사(2019.08) 시점 소매유통채널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주2) 환율기준 : 1USD=1,190원, 1NTD=38.8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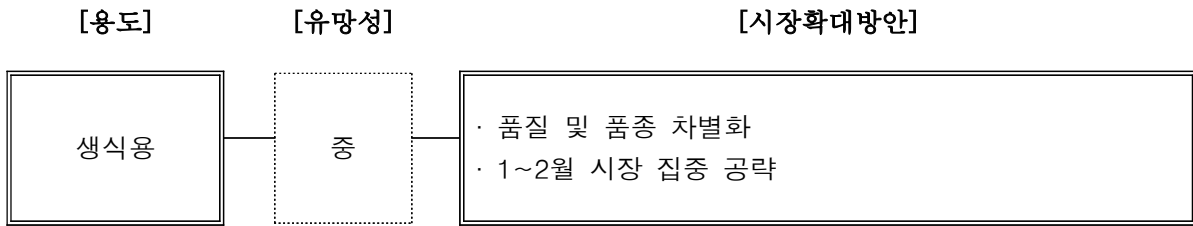
\* 출처 : 대한민국 통계청(kostat.go.kr), GTA(Global Trade Atlas)

□ 원산지별 평가

국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뉴질랜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브랜드 상품(제스프리)</li> <li>· 체계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로 균등한 상품성 유지</li> <li>· 연중공급망 확보하여 시장 내 인지도 및 로열티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키위(헤이워드) 15.0 °Bx, 137g</li> <li>· 골드키위(선골드) 18.5 °Bx, 109g</li> </ul>
이탈리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브랜드 상품(제스프리)</li> <li>· 뉴질랜드산과 공급시기 교체하여 시장 내 수요 충족</li> <li>· 뉴질랜드산보다는 품질 저평가</li> </ul>	N/A

## IV. 시장확대방안

### 1. 품목유망성



□ 한국산 키위는 대만 시장에서 인지도가 없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건강·기능적 측면에서 대만 내 키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브랜드의 인지도 및 로열티가 매우 높은 시장임
- 거대 경쟁국인 뉴질랜드산 수입물량이 적은 시기에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뉴질랜드산 키위 품질 이상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품종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인지도 및 품질수준</li> </ul>				
<table border="1"> <tr> <td>S</td> <td>W</td> </tr> <tr> <td>O</td> <td>T</td> </tr> </table>		S	W	O	T
S	W				
O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산 수입물량 적은 시기 공급 물량 확대하여 경쟁력 확보 가능</li> <li>· 키위 소비 증가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브랜드 인지도 및 로열티 매우 높음</li> </ul>				

- 가격경쟁력, 품질, 브랜드인지도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브랜드의 시장 내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산 키위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대만의 키위 시장은 특정 브랜드(제스프리)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
    - 해당 브랜드는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산 키위를 대만시장에 연중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의 약 9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브랜드는 대만 시장 내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고 그린키위(헤이워드)·골드키위(선골드)·점보키위를 유통함<sup>27)</sup>
    - 또한 키위의 생산에서 마케팅까지의 품질 표준을 정립하여 세계 각국에서 일정한 품질의 상품을 유통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함
  - 현지 업계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만의 소비자들의 키위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높은 편인데, 특정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sup>28)29)</sup>
    - 제스프리는 대만시장 초기 진출 시점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시장을 석권함
      - 일반 대형마트와 같은 소매유통채널에서 해당 브랜드의 고정 프로모션은 연중 약 200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체광고뿐만 아니라 시식회, 증정행사, 가격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견고히 함
  - 이에 현지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산 키위의 대만시장 진입과 관련해 특정 브랜드를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시장 내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인지도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7) 현지 소매유통채널 PX마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7.)

28) 현지 소매유통채널 PX마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7.)

29) 현지 소매유통채널 RT마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8.)

## 2. 시장확대방안

시 장 확 대 방 안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도] 그린 15.0 °Bx 이상 / 골드 18.5 °Bx 이상</li> <li>· 뉴질랜드산 수준 이상으로 품질향상, 프리미엄 시장 공략</li> <li>· 수출용 신품종(레드키위 등) 육성 필요</li> </ul>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 물량 감소하고 이탈리아 및 프랑스산 키위로 교체되는 1~2월 공격적인 물량공급을 통한 시장확대</li> </ul>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브랜드 및 산지브랜드 개발 및 육성을 통한 인지도 제고</li> <li>· 산지별 일관된 포장디자인을 통해 소비자 인식 확대 유도</li> <li>· 제수용 과일세트 구성 등 문화적 특징 반영한 마케팅 및 상품공급 필요</li> </ul>

### □ 품질 차별화를 통한 프리미엄 시장공략 및 점유율 확보

- 현재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 브랜드의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키위의 품질 차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만 현지조사 시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뉴질랜드산(제스프리) 키위를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린키위와 골드키위 모두 한국산 키위보다 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제스프리의 뉴질랜드산 그린키위(헤이워드)의 당도는 평균 15 ° Bx수준으로, 한국산 그린키위의 평균 당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일 브랜드의 뉴질랜드산 골드키위(선골드)의 평균당도 역시 한국산 골드키위보다 높은 18.5 ° Bx 수준으로 확인됨

원산지	품종		과중(g)	당도( ° Bx)
뉴질랜드산 (대만 유통)	그린키위	헤이워드	137	15.0
	골드키위	선골드	109	18.5
한국산	그린키위	헤이워드	110	13.8
		메가그린	160	15.0
	골드키위	호트16A	110	15.0
		Gold3(G3)	110	15.0
		제시골드	110	14.5
		한라골드	100	14.1
스위트골드	100	16.3		

\*출처: 뉴질랜드산 - 대만 현지조사 결과 / 한국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agri.jeju.go.kr)



- 한국산 키위의 품질수준을 높여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틈새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만에서 주로 유통되는 뉴질랜드산(제스프리) 키위보다 당도를 높여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만 소비자들은 과일 구매 시 ‘당도’를 가장 큰 구매요인으로 꼽으며<sup>30)</sup>, 단 맛이 나는 과일을 즐겨 섭취함
  - 따라서 그린키위의 경우 당도 15° Bx 이상 상품을 수출용으로 생산 및 선별하여 유통해야 하며, 골드키위의 경우 최소 18° Bx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프리미엄 상품은 선물용이나 제수용 수요가 높는데, 대만은 음력 1일과 15일에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어 이 시기의 제수용 과일 구매량이 급격히 높아지는 특징이 있음<sup>31)</sup>
  - 이에 선물용 포장 고급화, 제수용 세트포장 및 프리미엄 유통채널 입점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요에 맞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골드 및 레드키위의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을 통해 대만 키위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만에서 한국산 키위는 뉴질랜드산(제스프리)과는 특징이 다른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현지 업계에서는 한국산 레드 및 골드키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sup>32)</sup>
  - 그린키위의 경우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로열티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의 품질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그린키위보다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레드나 골드품종의 육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골드 및 레드키위는 그린키위보다 착과량이 적어 생산농가에서 수출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됨

30) 현지 소매유통채널 PX마트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7.)

31) 현지 소매유통채널 家樂福(Carrefour)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08.29.)

32) 전남대학교 조정안 교수 인터뷰 결과(2019.12.13.)

□ 이 외에도 유통시기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키위의 주출하기는 10~11월로, 본격적인 수출은 10월부터 시작되어 익년 4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됨
  - 대만에서 해당 시기는 주력 상품인 뉴질랜드산 키위 물량이 줄어들고 이탈리아 및 프랑스산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임
  - 이탈리아산 키위 역시 특정 브랜드(제스프리)의 상품이지만, 뉴질랜드산 대비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탈리아는 키위 재배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탈리아산 키위는 품종 및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뉴질랜드산보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키위 농가 및 전문가들은 한국산 키위 품질을 이탈리아산 키위와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오히려 이탈리아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따라서 시장에서 뉴질랜드산 키위가 이탈리아 및 프랑스산 키위로 대체되는 시점인 1월과 2월 공격적인 물량공급 및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I-2-1〉 대만 키위 원산지별 주요 유통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본산												
뉴질랜드산												
이탈리아산												
프랑스산												